

으로 마감처져 있다. 이 環狀의 꼭지 쇠와 透彫甲裝에는 鍍金을 했었으며 甲裝天部に 透彫된 菱形과 半橢圓形의 間地에는 두꺼운 銀箔을 입혀서 장식했고 이것은 마치 吉丁虫 날개를 同一한 技法으로 장식했던 同期古新羅의 工藝品과 흡사한 意匠手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甲裝의 上邊 垂直側面에는 押形으로 보이는 同心復輪으로 된 半橢圓形文을 上·下二段으로 등을 맞추어 羅列했으며 亦是 押形으로 보여지는 丸點文이 이 垂直側面의 上·下邊에 連珠狀으로 장식 되어 있다. 현재 二·五cm 内外의 間隔으로 銅釘이 甲裝위와 側面 垂直臺輪에 各其二段으로 남아 있으며 이것은 木心과 金屬甲裝을 固着시켰던 木心에도 같은 位置에 그 木心과 金屬甲裝을 固着시켰던 木心에서 木心에도 같은 位置에 그 銅釘으로 結着시켰으며 現在 이 全體의 스케일은 直徑이 一一·五cm 内外 總高는 八·一cm 内外이다.

이 遺物에서 特別히 注意를 끄는 것은 甲裝의 頂部に 腐蝕된 纖維片이 附着되어 있으며 細密하게 觀察하면 甲裝表面에 근대 근대 섬유유흔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點이다. 現在 金箔이 脫落된 部分에서 紫朱色에 가까운 銀銹狀의 녹이 나타나고 있으나 全面에 나타난 녹은 역시 銅綠色이어서 素材는 青銅으로

인정된다. 이 異形器의 伴出物이라고 하는 馬具類雲珠의 樣式으로 보나 豆形高杯에 類似한 蓋部樣式으로 보나 古新羅領域 또는 그 隣接文化의 產物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 一括遺物을 紹介할 때에 詳述해 보고 싶다.

青銅製 僧坐像

洪 思 俊

지난 六月十五日 경북道에서 送品된 青銅製僧坐像은 경북 金陵郡 直指寺 黃鶴山에서 出土된 것이다. 作品이 美麗하지는 않으나 兩肩에 袈裟를 披고 左右手를 合掌하고 다리는 結伽趺座한 것이 禪覺을 爲하야 一心精力이 三昧境에 이른 듯한 姿勢여서 매우 敬虔한 表現이라 하겠다.

은 坐리와 입귀가 위로 올라갔고 頭部와 兩肩사이의 목(頸)이 좀 앞은 感을 준다. 僧像의 前腹部와 後背面에는 袈裟文儀가 比較的 明確하고 方形座臺側面들에는 忍冬文陽刻線이 나타나 있다. 座臺에 부처서 만들어졌던 欄干이 歪曲되었고 거기에 前面欄干은 竿柱만 서 있다. 全體로 보아 座臺가 僧像에 比해서 얇다. 鑄造方法은 模型을 만들어 青銅을 流入한 듯 殘滓粉末이 前面座臺及 趺坐脚部에 붙어 있다. 鑄造後 袈裟에 彩色을 한 듯 左肩一部와 臂部及 脚部에 若干의 黃色이 붙어 있다. 座臺底面은 中空되고 僧體內도 中空이다. 時代는 高麗時代로 推定된다. 僧像坐高 一七·八cm 座臺高 二cm 前後巾 九·五左右



九 cm 總高一九·八 cm

〔附記〕 이 遺物은 本誌 三卷 六號 卍—에 記載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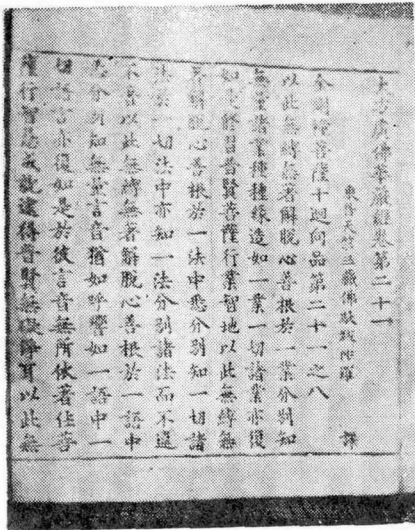
長谷寺의 金銅藥師坐像 腹藏佛經

李 殷 昌

一九五九年 四月에 靑陽 長谷寺 下大雄殿 金銅藥師如來坐像 ①의 腹藏遺物을 調査한 바 있는데 發見된 腹藏遺物中 ②에 高麗佛經으로 推定되는 金剛經·華嚴經 等과 朝鮮初의 것으로 推定되는 妙法蓮華經 等이나왔다. 이는 麗末·鮮初의 佛經刊行의 一貌를 엿볼 수 있는 資料로 생각되어 이에 紹介하는 바이다.

1. 金剛經

白紙에 아름다운 木板印刷의 折帖本으로 된 金剛經이다. 紙質은 尙 새 洋紙(更紙와 비슷함)에 比할 수 있는 것이며 上下의 界線이 있고 各行의 野線은 없다. 첫머리의 表紙와 初頭가 떨어져 나가서 變相圖의 有



無·經典의 書頭를 알 수 없고 끝 表紙만이 있는데 藍色厚紙로 되었으며 末尾에는 다음과 같은 墨書跋文이 있다.

「金剛經者以空爲宗空性無尋一切圓應」
求長壽者能得長壽故謂之續命經是以伏爲」

皇帝萬萬歲

皇后

皇太子齊年享福

兼及寡躬延壽保

安上昇

公主超生淨利社

稷長與法界生土

俱霑妙益

印成一萬卷 廣

施無窮者

泰定三年二月

日誌

泰定은 元의 年號요 泰定三年은 高麗忠肅王十三年이니 이 經本은 高麗末에 刊行된 것이며 또 「印成一萬卷」이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大規模의 佛經 刊行事業의 하나로 推測된다.

2. 華嚴經

大方廣佛華嚴經 卷二十一이니 白紙에 木板印刷된 折帖本인 바 한 장은 안으로 들고 한 장은 밖으로 나오도록 交互하는 所謂 蝴蝶裝으로 되어 있다. 紙質은 두터운 白紙요 表紙와 卷尾가 떨어져 나가서 跋文等은 볼 수 없다. 版面은 上下 界線을 두고 各行 野線은 없으며 各葉 六行씩 各行 十七字씩으로 되었고 字徑은 一·二cm 字間은 縱一·四cm 橫二·一cm로 歐陽詢體 楷字이며 字劃이 깨끗하고 또렷하였하여 마치 宋版을 連想시키는 高麗朝에 볼 수 있는 類例의 經版이다.

3. 妙法蓮華經

妙法蓮華經 卷第二이니 곧 諺解本이다. 紙質은 얇은 白紙이고 太線으로 된 匡廓과 野線이 있으며 板心魚尾 밑에 「法華經 卷二」라 적혀 있으며 「妙法蓮華經卷第二」라한 典籍題下에 印章이捺印되어 있다. 靑을 풀러 갖을 잘라냈기 때문에 元來의 規格은 모르겠으나 印板 모습으로 보아 世祖時에 刊行된 木板本으로 推定된다. 世祖는 그 六年에 刊經都監

